

동아화성, 중국 고무부품 시장공략

일본 미토요와 공동투자 합의 ... 자동차용 하이테크 소재 거래선 확보

하이테크 고무소재 부품 생산기업인 동아화성이 일본기업과 손잡고 중국시장에 공동투자한다.

동아화성(대표 임경식)은 7월19일 일본 미토요와 중국공장 설립에 대한 공동 자본투자 합의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동아화성은 2003년 장쑤성에 자본금 30억원의 자동차용 고무부품 및 드럼세탁기용 도어 개시킷 공장을 설립했으며 증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기업과의 공동투자를 결정하게 됐다.

합의서 체결에 따라 미토요는 동아화성의 중국 증설예정 금액인 301만달러(약 35억원)에 대한 10%를 투자할 예정이며 양측은 추가투자가 진행될 때마다 별도의 자본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동아화성의 중국공장 매출액은 2003년 4억원으로 2004년 들어서는 10배 이상인 45억원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기업과의 공동투자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계 완성차 메이커 및 부품 생산기업 대한 거래선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공동투자로 설비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다양한 영업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동아화성은 자동차용 고무부품, 드럼세탁기용 도어 개시킷을 주축으로 전자제품용 하이테크 고무소재 부품 및 신소재 개발 등 사업다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미토요는 2003년 매출액 1400억원을 달성한 일본 자동차용 고무부품 제조기업이다.

<화학저널 2004/07/21>